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ANNA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일을 하기전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 오스왈드 챔버스

We pray when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Jesus wants us to pray before we do anything at all.

- Oswald Chambers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December 2021, 12월에는

Time 시간 _____

Place 장소 _____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_____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편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열 다섯 번째 편지 FIFTEENTH LETTER

죽음에 임박하여 :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그가 하시는 일이 달던 쓰던 간에 가리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고통은 절대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게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분은 고통을 덜어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FATHER)'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그 쓰라림(bitterness)을 잃게 되고, 심지어 위안(consolation)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임무(employment)는 하나님을 아는 것(to know GOD)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지요. 보통 상대방을 얼마나 아

는지를 가지고 사랑을 측정(the measure of love)한다고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 깊고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사랑 역시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in pains and pleasures) 똑같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혹은 앞으로 베푸실 어떤 상당한 은혜(sensible favours)에 겨워(그것이 얼마나 높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거나(seek)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한 은혜는 아무리 크다 한들 단순한 믿음의 행동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그분을 찾지 맙시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불쾌해하실 하찮은 일들(trifles)에 빠진 채 그분을 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들이며, 비난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시한 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겠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그분께 헌신하기를 시작합시다. 그 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냅시다. 그래야 그분 홀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 은총을 간구하세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곧 우리가 열망하던 변화(change)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완화(relaxation)시켜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로 며칠 후면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틀 후, 그(로렌스 형제)는 자리에 누웠고,
그 주에 세상을 떠났다.

역자 후기

로렌스(로랭) 형제의 본명은 '니꼴라 에르망(Nicholas Herman)'으로,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입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참전했던 30년 전쟁(1618~1648년)에서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고초를 겪었다. 퇴역 후에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인해 심부름꾼으로나 일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간 그는, 새로 '부활의 로렌스(Lawrence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로랭)'라는 수사명을 얻었다.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 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이었다.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파리 대주교(Archbishop of Paris) 소속, 주교 대리 법무관(vicar general)이 된 보포르 신부(Father Joseph de Beaufort)도 있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 사후, 보포르 신부가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책으로 낸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uary 금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1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2장

3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0

5 핵잡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혼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한다.

2 잠언 2:1-12

6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1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2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3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8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9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11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21

❹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❺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❻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❼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❽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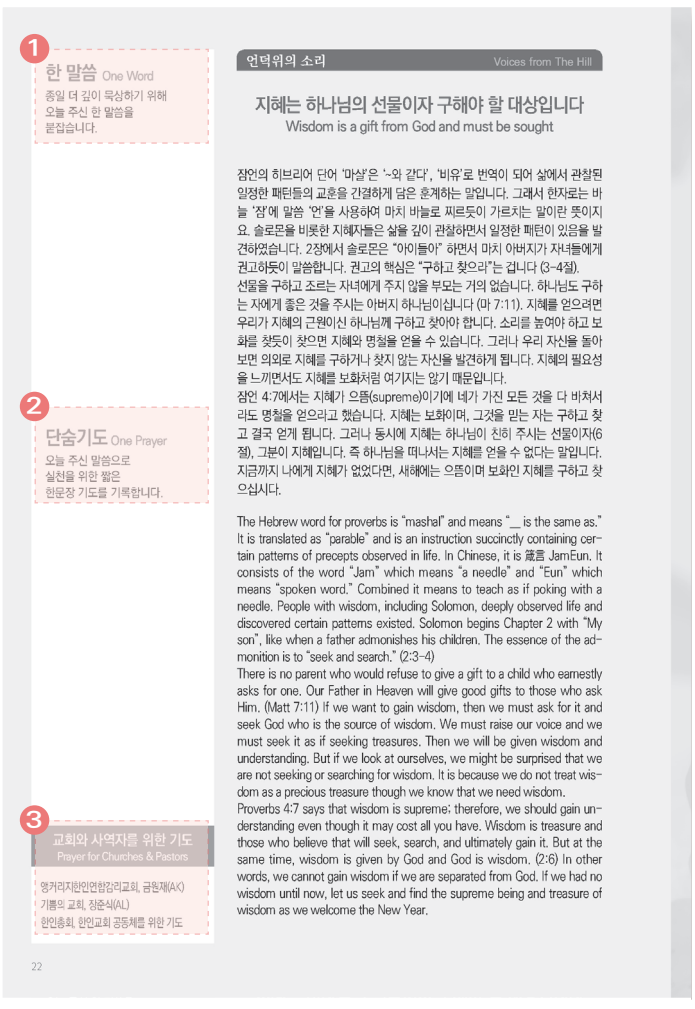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❶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❶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묻집습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22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와 같다',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혼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늘 '잠'에 말씀 '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요.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3-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 7:11).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외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화처럼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기진 모든 것을 다 비처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하고 찾고 결국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자(6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으십시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_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tl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箴言 JamE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❹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❺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❻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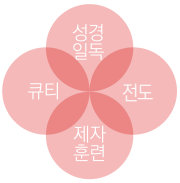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December

12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5	6 누가복음 Luke 6장 ☐	7 누가복음 Luke 7장 ☐
12	13 누가복음 Luke 12장 ☐	14 누가복음 Luke 13장 ☐
19	20 누가복음 Luke 18장 ☐	21 누가복음 Luke 19장 ☐
26	27 누가복음 Luke 20장 ☐	28 누가복음 Luke 21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누가복음 Luke 3장 ☐	2 누가복음 Luke 4:1-13 ☐	3 누가복음 Luke 4:14-44 ☐	6 누가복음 Luke 5장 ☐
8 누가복음 Luke 8장 ☐	9 누가복음 Luke 9장 ☐	10 누가복음 Luke 10장 ☐	13 누가복음 Luke 11장 ☐
15 누가복음 Luke 14장 ☐	16 누가복음 Luke 15장 ☐	17 누가복음 Luke 16장 ☐	20 누가복음 Luke 17장 ☐
22 누가복음 Luke 1:1-38 ☐	23 누가복음 Luke 1:39-80 ☐	24 누가복음 Luke 2:1-21 ☐	27 누가복음 Luke 2:22-52 ☐
29 누가복음 Luke 22장 ☐	30 누가복음 Luke 23장 ☐	31 누가복음 Luke 24장 ☐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누가복음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은 신약에 기록된 4개 복음서들 중 가난한 자, 이방인, 세리, 여성 등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 당했던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불립니다. 또한 예수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해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수려한 헬라어로 기록돼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예수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나 저자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2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으로 바울의 동료였던 의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직전인 A.D. 60-62년경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됐다고 밝히고 있는 누가복음의 어느 곳에도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익명의 이방인 저자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인 80년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권의 책인가?

누가복음은 원래 사도행전과 같이 쓰인, 2부작으로 된 연작집의 첫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입니다(눅 1:1-4, 행 1:1-5).

비록 두 권의 책이 함께 이어진 사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두 책이 본래 한 권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초대 교부들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누가-행전으로 존재했던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분리된 이유는 내용상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어울리는 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루는 내용의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출생-사역-최후로 이어지는 예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보다 로마서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도행전이 별도의 책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24장으로 이뤄진 누가복음과 28장으로 이뤄진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묶였을 경우 총 52장으로 신약성경의 1/4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전진하는 복음의 운동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향적 운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단히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두 권의 책 안에서 복음의 운동, 복음의 진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었습니다(4:43). 그 내용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은혜의 다스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의 대상은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입니다.

누가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죄인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중에 세리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여인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과부에 대한 관심도 역시 두드러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심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는 허위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한에서만 복음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의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선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의 비밀?

성령과 기도

누가복음이 관심 갖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의 비밀은 "성령"과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1:35), 성령의 세례(3:22)를 기점으로 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광야 시험을 인도하였고(4:1),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언 활동을 하였습니다(4:14). 권세 있는 사역의 원천도, 지혜 있는 가르침의 원천도 모두 성령이었음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공적인 증언활동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3:21; 5:16; 6:12; 9:18, 28-29, 10:21; 11:1; 22:32, 41-45; 23:34, 46). 모두 중요한 순간들 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 교회,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당연히 "증인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때, 예수의 증인 공동체는 땅끝까지 찾아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해설성경(대한기독교서회)

Luke Johnson,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Fortress Press)

신양공동체를 위한 신약성서 이해(성서연구사)

뉴 인터프리터 스터디 바이블(Abingdon Press)

01

December 수 Wed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3장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실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세례 요한의 출현(1-6절); (2) 세례 요한의 사역(7-20절); (3)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21-22절); (4)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23-38절).

누가복음 3:1-6

1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Reading insight

Luke 3 introduces John the Baptist as the prophet ahead of Jesus Christ and the new era led by Jesus Christ. This chapter consists of four sections: (1) the appearance of John the Baptist (3:1–6); (2)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3:7–20); (3) the baptism of Jesus Christ (3:21–22); and (4) the lineage of Jesus Christ (3:23–38).

Luke 3:1–6

1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and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and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the region of Iturae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2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echariah in the wilderness.

3 And he went into all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4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5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and the crooked shall become straight, and the rough places shall become level ways,

6 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로마의 디베료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의 총독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재직했던 자들은 각각 누구입니까? (1절)
During the reign of Roman emperor Tiberius, who was the governor of Judah and the tetrarch of Galilee? (3:1)

누가복음서 기자는 요한이 전파한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How did the author of the Book of Luke describe the baptism that John had ministered? (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새 시대, 새 마음
New Era, New Heart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길이 예비되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보았습니다(사 40:3-5).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으로써,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과 맞닥뜨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가실 새로운 시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사건의 주역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새 시대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갖는 일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으로써, 우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파한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환대를 베풀며,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눅 3:11-14).

Prophet Isaiah prophesied a long time ago about the appearance and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and called i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Isaiah saw such a way prepared for the LORD as each valley was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became straight, and the rough ways smooth (Isa 40:3-5). This event was as if the sky opened and the ground was torn apart. John the Baptist proclaimed to the people of Judah to be prepared thoroughly to experience this enormous event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new era being opened by Jesus Christ.
In order to receive a new era,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have a new mind. Of course, the protagonist of the event was not John the Baptist but Jesus Christ. In other words, only Jesus Christ could open a new era. Then what we need to do is to have a new mind fit for a new era, that is, to have resolve for a new life. As a first step, we not only need to thoroughly repent our sins but also we need to produce good fruits of our repentance. As proclaimed by John the Baptist, we need to actively do good works, exercise hospitality, and stop lying (Luke 3:11-14).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2

December 목 Thu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Jesus tempted by the devil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4:1-13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Jesus' sonship)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고,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에 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모든 위험을 충분히 물리치고 방호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선언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누가복음 4:1-12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3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Three temptations by the devil were to test Jesus' Sonship of God. As the Son of God, Jesus was able to supply all the material needs of the people, and as the king of the kings he could have exercised his power over all nations. He had enough power to protect himself by fending off all dangers. By proclaiming that those powers belong to only God, Jesus fended off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Luke 4:1–12

1 An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2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
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were ended, he was
hungry.

3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
mand this stone to become bread."

4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5 And the devil took him up and showed him all the king-
doms of the world in a moment of time,

6 and said to him, "To you I will give all this authority and
their glory, for it has been delivered to me, and I give it to
whom I will.

7 If you, then, will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8 And Jesus answered him, "'You shall wor-
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9 And he took him to Jerusalem and set him on the pinna-
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10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11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12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said,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귀가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was the devil's first temptation of Jesus who had fasted for forty days in the desert? (4:3)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9–11절)
What was the devil's temptation of Jesus at the top of the temple in Jerusalem? (4:9–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차차 마귀
The Devil called "Cha Cha"

마귀의 시험(유혹, temptation)은 끈질긴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 후,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13절). 이 구절은 마귀가 언제라도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 사부자(四父子)가 신자들을 미혹할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큰아들 마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는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면 어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마귀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마귀가 "그것도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셋째 아들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것을 천천히 믿겠다고 하도록 미혹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와 나머지 두 형제 마귀가 다 찬성하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일을 천천히 하라고 유혹하는 '차차 마귀'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Perseverance is a characteristic of the devil's temptations. The devil who tested Jesus did not stop after the first temptation but tried a second and third time. Even then, the devil did not retreat completely.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4:13). This phrase reveals that the devil could reappear any time to test Jesus again.
One day, the father and three sons of the devil family discussed ways to tempt believers. The oldest devil son first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no God in the world." But the father devil challenged him by saying, "That will not work.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God when there is God?" Then the second oldest devil son said, "Let us claim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Then the father devil challenged again, "That will not work either. Jesus is clearly the son of God, how can we deny that?" At last, the third devil son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God and Jesus is the Son of God but let us tempt them to believe those truths slowly." Then the father devil and the other two devil sons agreed and declared it to the world. The devils can now be named "Slow-Slow-devil" because they tempt believers to believe Jesus slow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3

December 금 Fri

예수님의 첫 설교

The first sermon of Jesu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4:14-44



새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와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14-30절),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31-37절), 그리고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과 더불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38-41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4:16-24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first sermon of Jesus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and the reaction of the people(4:30).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story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being healed when Jesus was preaching at the synagogue in Capernaum(4:31–37). The third part is about healing Simon Peter's mother-in-law's high fever and the sickness of many other people(4:38–41). Proclaiming the Word of God, teaching, and healing sick people were the primary ministries of Jesus.

Luke 4:16–24

16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as was his custom, he went 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he stood up to read.

17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He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20 And he rolled up the scroll and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21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22 And all spoke well of him and 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were coming from his mouth. And they said, "Is not this Joseph's son?"

23 And he said to them, "Doubtless you will quote to me this proverb, 'Physician, heal yourself.' What we have heard you did at Capernaum, do here in your hometown as well."

24 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no prophet is acceptable in his hometow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누구의 글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까? (17절)
When Jesus went to the synagogue in Nazareth, what part of the Bible did Jesus read? (4:17)

나사렛 회당에서 행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3–24절)
What did Jesus say after he heard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had heard his sermon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4:23–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보는 눈
People's insight to recognize Jesus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그저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평소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 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은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인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Upon hearing Jesus' sermon, the audience was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but at the same time sarcastically commented, "Isn't this Joseph's son?" In other words, this comment reveals their prevailing thoughts refusing to treat Jesus as the Son of God but as Joseph's son, just a common man like themselves. People often fail to look at certain people or events with a deeper and wider sense of understanding because of their prejudices or stereotypes. Jesus was the Son of God before he was the son of Josep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Nazaret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Judah either. Jesus came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e salvation brought by Jesus was not limited to just a certain region or a certain race. The salvation was universal and ordinary. The people of Nazareth misunderstood Jesus and, as a result, they did not rightly believe Jesus. They ended up driving him out of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to throw him down the cliff.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4

December 토 Sat

죄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The Redeemer of sinners,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5장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1-11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12-26절), 그리고 세리 레위(마태로 알려진)를 부르신 이야기와 더불어 혼인 집 손님들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33-39절)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시고, 그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셨다.

누가복음 5:27-32

2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Reading insight

Luke 5 recorded the stories of Jesus first calling the disciples(5:1–11), Jesus healing the leper and paralytic(5:12–26), Jesus calling the tax collector Levi(aka Matthew), and the wedding guests and the parable of new wine(5:33–39). As Jesus opened the new world leading to the Kingdom of God, he called and made disciples to invite them to the new world.

Luke 5:27–32

27 After this he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28 And leaving everything, he rose and followed him.

29 And Levi made him a great feast in his house, and there
was a large company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reclining at
table with them.

30 And the Pharisees and their scribes grumbled at his disciples,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31 And Jesus answered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32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
When Jesus said "Follow me" to Levi who was sitting at the tax booth, what was Levi's reaction? (5:2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omplained to the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at was Jesus' response? (5:31–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교회, 의인들의 집합소?
Church, is it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예수님 당시에 이른 바, 자기-의에 몰입되어 '경건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 모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병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구원자(의사)가 절실하다 판단하고 자신이 바로 죄인의 구원자로 세상에 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32절).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과연 의인들만 모인 곳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불신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의'에 함몰될 위험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그리스도인들 모두 여전히 죄인입니다. 전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At the time of Jesus, the Pharisees of "bogus godliness" labeled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s "sinners" and treated them as if they had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But Jesus believed that because they were sinners (the sick), they badly needed the redeemer (the doctor) and proclaimed that he himself came to this world as the redeemer of the sinners.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5:32) But then, is the present day church a place of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only? Of course, the followers of Jesus are forgiven of their sins and are the people of righteousness by the grace of God.

From that point of view, a church may be called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However there is a trap to this statement. That is, there is a hidden danger to fall into "self-claimed righteousness" whereas treating outsiders (non-believers) as sinners. For example, the church in Laodicea had fallen into this type of trap.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Rev 3:17) All Christians are still sinners. Christians are not righteous without the need for repentance but are sinners who are forgiven of sins by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5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송종남 목사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매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교회력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인데,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강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고, 운동회 날을 기다리고 명절날을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뻤던지요. 하나의 기다림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에서 우리는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기다림은 곧 기쁨이고 소망인데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슬프고 삭막한지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조차 안 하면서 온통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은 쏙 빼놓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12월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명한 Garden에는 추수감사절 주간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온갖 호화찬란한 전등으로 장식을 해 놓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분명히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만든 장식들인데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없고, 그냥 전등으로 불꽃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즐기게 하는 것이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디 그 Garden뿐이겠나 싶습니다. 요즘 사회 풍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5개의 대강절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5개의 초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둘러보면 지난 한 해, 참 어수선하고 복잡했고 어두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강절 초를 밝히며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불을 밝힙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기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06

December 월 Mon

열 두 제자를 택하심

The Twelve Disciples were chose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6장

(복음성가)
나는 비록 약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천명하셨고(1-5절),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6-11절). 그 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후,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12-19절), 평지에서 여러 교훈들을 들려주셨다(20-49절).

누가복음 6:12-19

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Reading insight

On the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were judging the disciples of Jesus picking the heads of grain and eating, Jesus declared,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6:1-5). On another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judged Jesus healing a man with shriveled right hand, Jesus declared,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6:6-11) After that, Jesus went to the mountain and prayed all night, picked twelve disciples (6:12-19) and continued his many teachings in the towns (6:20-49).

Luke 6:12-19

12 In these days he went out to the mountain to pray, and all night he continued in prayer to God.

13 And when day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and chose from them twelve, whom he named apostles:

14 Simon, whom he nam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and James and John, and Philip, and Bartholomew,

15 and Matthew, and Thomas, and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16 and Judas the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17 And he came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with a great crowd of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18 who ca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And those who were troubled with unclean spirits were cured.

19 And all the crowd sought to touch him, for power came out from him and healed them al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do before he picked twelve disciples? (6:12)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
Among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who would later sell Jesus? (6: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인간의 평범함, 하나님의 비범함
Ordinary Man, Extraordinary God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레위(마태)는 주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였으며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특출나게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가 사도의 반열에 세워집니다. 행 1:26).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 지도자들이라 불린 그룹(서기관, 제사장, 장로 등)에 속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unschooled, ordinary men)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함'(ordinariness)은 하나님의 '비범함'(extraordinariness)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능력과 영광과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All twelve disciples of Jesus were ordinary peopl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were all fishermen in Galilee. Levi (Matthew) was a tax collector and the target of people's hatred. But nothing in particular is known about Philip, Bartholomew, Thomas, James the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the son of James. Unfortunately Judas Iscariot became blind out of greed and betrayed Jesus (Later Judas Iscariot committed suicide and was replaced by Matthias as the twelfth disciple. Acts 1:26) None among the twelve was a so-called leader (teachers, priests, elders, etc.). Acts 4:13 states,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But God accomplished astonishing things through these disciples. God always calls ordinary people and accomplishes extraordinary things. That is because our "ordinariness" is good enough as a tunnel to reveal the "extraordinariness" of God. Therefore God's calling is never empty. Rather it is a calling of power, glory, and blessing. In receipt of that calling, there is no excuse. Those called by God should release all their weaknesses to the able hands of God and only obe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7

December 화 Tue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God of Life,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7장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1-10절), 그 후 나인 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11-17절).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고(18-23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셨다(24-35절). 그 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 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36-50절).

누가복음 7:11-17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Reading insight

Jesus healed the servant of a Centurion of the Roman army in Capernaum (7:1–10), then He raised the dead son of a widow in Nain (7:11–17). Upon hearing this message, when John the Baptist sent a message asking if Jesus was the Messiah they were waiting for, Jesus declared that He was the Messiah (7:18–23). As Jesus explained about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he told the parable of children in the marketplace (7:24–35). Then as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a woman came to Jesus and poured perfume on his feet. Jesus praised her faith, and told the Pharisee who had dinner with him the parable of the cancellation of debts for two people (7:36–50).

Luke 7:11–17

11 Soon afterward he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great crowd went with him.

12 As he drew near to the gate of the town, behold, a man who had died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considerabl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13 And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14 Then he came up and touched the bier, and the bearers stood still.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15 And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 gave him to his mother.

16 Fear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among us!"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17 And this report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of Judea and all the surrounding countr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나인 성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과부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id Jesus first say when he saw the widow who was going to bury her dead son in Nain? (7:13)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16절)
When the dead son of the widow in Nain was raised by Jesus, what did the people who witnessed the event exclaim upon proclaiming glory be to God? (7: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두 가지 행렬, 그리고
Two processions, and then

예수님은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가까이에서 장례식 행렬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유일한 의지인 독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며 주검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자 장례식 행렬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렬이 마주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과 소망의 행렬입니다.
관 속에 있는 자는 죽음에 의해 망한 자이나, 그 관에 손을 댄 자는 죽음을 멸망시킨 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행렬이 또 하나의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환호하는 승리의 축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역사로써 죽음과 절망은 성 밖으로 나가버렸고, 생명과 소망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의 삯인 사망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잃어버렸고, 죄의 구속으로 인한 영생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Near the gate of the town Nain, Jesus encountered a funeral procession. Sadly it was the funeral procession for the widow's son. We can imagine how sad she was as her only son left her. Knowing her sorrow, Jesus said, "Don't cry," and touched the coffin, the whole procession stopped. As Jesus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Here we see two crowds facing each other. One was death and despair and the other was life and hope.
The one in the coffin was dead one but the one who touched the coffin defeated death. Those two processions created a bigger crowd and became a crowd celebrating the victory and exclaiming, "A big Prophet arose among us! Our LORD took care of His people!" As a new history of the life of Jesus Christ began, death and despair were kicked out of the town, and life and hope were invited into the town. Death as the price of sin no longer had any power, but eternal life as capitulation of sins was given as a gift to all believ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8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The Son of God,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8장

새474장
의원되신 예수님의

통529장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치유의 이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적 이야기들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권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의 권위는 자연에 대해서(22-25절),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26-39절), 질병에 대해서(40-48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49-56) 강력하게 행사되었다.

누가복음 8:40-48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41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Reading insight

Luke 8 consists of the teachings and sermons of Jesus Christ and the stories of healings and miracles. The stories of the miracles are especially focused on the coming proclaimer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authority of the Son of God, Jesus Christ. His authority was exercised strongly on nature (8:22–25), on the powers of evil spirit (8:26–39), on diseases (8:40–48), and on death (8:49–56).

Luke 8:40–48

40 Now when Jesus returned, the crowd welcomed him, for they were all waiting for him.

41 And there came a man named Jairus, who was a ruler of the synagogue. And falling at Jesus' feet, he implored him to come to his house,

42 for he had an only daughter, about twelve years of age, and she was dying. As Jesus went, the people pressed around him.

43 And there was a woman who had had a discharge of blood for twelve years, and though she had spent all her living on physicians, she could not be healed by anyone.

44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immediately her discharge of blood ceased.

45 And Jesus said, "Who was it that touched me?" When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crowds surround you and are pressing in on you!"

46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for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47 And when the woman saw that she was not hidden, she came trembling, and falling down before him declared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mmediately healed.

48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44절)
What had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done to be healed? (8:44)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8절)
When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told the people that she was healed, what did Jesus tell her? (8:4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터치다운
The Touchdown of God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리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식축구인 풋볼(football) 경기의 묘미는 뭐니 뭐니해도 '터치다운'(touchdown)에 있습니다. 누군가 철벽같은 수비수들을 뚫고 질주해서 '엔드 존'(end zone)에 터치다운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12년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도 온갖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 기어코 예수님께 터치다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어루만지기(touch) 위해 오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의 터치다운(God's touchdown)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mobilized all ways and means to treat the illness but to no avail. Having heard that Jesus had healed various illnesses, this woman walked through the crowd, came up behind Jesus,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She was sure that her illness would be healed if she could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In American football, the most exciting moment is the "touchdown." The crowds ecstatically erupt at the moment when the player runs through powerful defenses and reaches the end zone with the football scoring a touchdown.
The woman subject to twelve years of bleeding ran through all kinds of obstacles and touched down in the end zone where Jesus was. In fact Jesus came to this world from heaven to 'touch" us. Strictly speaking, the "incarnation" was "God's touchdown." God wanted to be like us and he came to this world like us in flesh. We must therefore come nearer to Jesus and touch Jesus. As we reach out to Jesus and touch Him with faith, amazing things will happen to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9

December 목 Thu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The way to follow Jesu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9장

새324장(통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9장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냄 받은 열두 제자와 헤롯의 질문(1-9절); 오천 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10-17절); 예수님은 누구 인가에 대한 질문(18-27절); 변화산 사건(28-36절);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37-45절);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언쟁(46-50절);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의 시작(51-56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세 사람(57-62절).

누가복음 9:57-62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Luke 9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 the twelve disciples being sent and Herod's questions (9:1–9); the miracle of feeding the crowd of five thousand (9:10–17); the question of who Jesus is (9:18–27);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9:28–36); healing a boy with demons (9:37–45); the argument among the disciples (9:46–50);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to Jerusalem (9:51–56), and three men who want to follow Jesus (9:57–62).

Luke 9:57–62

57 As they were going along the road, someone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58 And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59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said, "Lord,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60 And Jesus said to him,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But as for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61 Yet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62 Jesus said to him,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8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on the road who said,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9:58)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2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who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9:6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 믿으미와 예수 따르미
Those believing Jesus and those following Jesus

본문에는 세 번 연속으로(57절, 59절, 61절) '예수 따름'의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점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디 명령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명령 속에서, '나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행위, 곧 믿으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 속에서, '나를'에가 아니라 '따르라'에 강조점을 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곧 따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 마디 명령 속에 '인격'(person)이 있고, 동시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필연적으로 가야 할 '행로'(path)가 있습니다. 달콤한 평안이 있고, 동시에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동시에 수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동시에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결정된 현장,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한완상 교수님이 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서, 저자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는 "믿습니다" 를 외치는 예수 신자, 곧 '예수 믿으미'는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올곧게 따르는 예수 제자, 곧 '예수 따르미'는 적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예수 믿으미인 우리 모두 예수 따르미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Jesus repeats the phrase "follow me" three times in verses 57, 59 and 61. Therefore, the essence of today's scripture is the command of the Lord, "Follow me." But this one command tells u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Jesus and following Jesus. In other words, from the command of "follow me," if we place an emphasis on "me," it means to believe Jesus as our Savior, that is, "the believer." But if we place an emphasis on "follow," it means to become "the follower." Within the command of "follow me," there are the traits of the follower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path that all disciples of Jesus must follow. There is sweet comfort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bitter pain. There is glory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shame.
There is Jesus Christ who revealed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Jerusalem, the very place where the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of Jesus who himself was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was completely realized. In the book Jesus Church without Jesus by Prof. WanSang Han,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re are so many Korean churches where we hear the cries of "we believe" but the number of "Jesus followers," the true disciples of Jesus, is diminishing. This Advent season waiting for the birth of Jesus is a good opportunity to renew our faith to convert from believers to followers of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0

December 금 Fri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The master
of my life,
Jesus Christ

맥잡기

예수님은 70명을 전도자로 세워 파송하셨다(1-16절). 그 후 그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17-20절),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이 받은 복을 말씀하셨다(21-24절). 그런 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셨고(25-37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38-42절).

누가복음 10:38-42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0장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Jesus picked 70 and sent them out as evangelists (10:1–16). When they came back and reported with joy to Jesus (10:17–20), Jesus was also joyful and prayed to God and talked about the blessings the disciples received (10:21–24). Then He told the parable of the Samaritan man to the teacher of the law who tried to test Jesus, and as he continued to walk toward Jerusalem, he visited the house of Martha (10:38–42).

Luke 10:38–42

38 Now as they went on their way, Jesus entered a village. And a woman named Martha welcomed him into her house.

39 And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and listened to his teaching.

40 But Martha was distracted with much serving. And she went up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serve alone? Tell her then to help me."

41 But the Lord answered her,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troubled about many things,

42 but one thing is necessary. Mary has chosen the good portion, which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
As Martha was busy preparing to treat Jesus, what was Martha's younger sister Mary doing? (10:39)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 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1–42절)
As Martha complained to Jesus about Mary, what did Jesus tell Martha? (10:41–4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오직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참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대상이요, 건축가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며, 의사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며, 설교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철학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질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만세반석이며, 농부들에게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이며, 탕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이며,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주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Jesus does not appreciate us busying ourselves with many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a simple life. Rather than distracting our minds with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our living focused on only one thing, that is, longing only for Jesus. If we focused our minds only on Jesus like Mary, Jesus would praise us, "You have chosen to be on the good side."
Somebody described Jesus in this way. "To artists, Jesus is totally an object to love, to the architects, Jesus is a cornerstone, to the medical doctors, Jesus is the greatest healer, to the preachers, Jesus is the Word of God, to the philosophers, Jesus is the wisdom of God, to the geologists, Jesus is the solid rock, to the farmers, Jesus is the master of the harvest, to the prodigal people, Jesus is the father of forgiveness, to the lost lambs, Jesus is the good shepherd, to the hungry souls, Jesus is the cake of life, to the thirsty souls, Jesus is the spring water of life, to the people dying,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life." Jesus alone is the master of our lives.
Therefore people who have chosen one and only one Jesus are as good as those who own everything. Faith is not for this or that, but for only one thing. The object of our focus must be only one thing, that is, only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1

December 토 Sat

기도와 영적인 변혁

The Prayer and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1장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1-13절), 기도를 통해 얻는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13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신 후(13-28절),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임을 알리시며(29-32절), 몸의 등불인 눈에 대해 가르치신 후(33-36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호되게 질책하셨다(37-54절).

누가복음 11:5-13

5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6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Jesus taught about prayer (11:1–13) and the good we gain through the prayer is the "Holy Spirit" (11:13). Luke 11 includes Jesus speak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how the devil will be thrown out by the hand of God (11:13–28), announcing that the son of man would be a sign as Jonah was a sign to his generation (11:29–32), teaching about eyes that are the lamplights of our body (11:33–36), and berating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11:37–54).

Luke 11:5–13

5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who has a friend will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three
loaves,

6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on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7 and he will answer from within, 'Do not bother me; the
door is now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
no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8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9 And I tell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10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11 What father among you, if his son asks for a fish, will in-
stead of a fish give him a serpent;

12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13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기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무슨 청을 했습니까? (5–6절).
In the parable for prayer, what did the person ask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11:5–6)

다음 구절에서 (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 . .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 )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Wouldn't your heavenly Father give you ( ) to those who seek it? (11: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당신의 체면 때문에
Because of saving face

본문 8절에 나오는 '간청함,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된 희랍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anaideia)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례함', '뻔뻔함', '몰염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연성이 적은 '간청함'으로 풀이함으로써,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졸라 대어 마침내 빵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로 얻는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몰염치'라는 본래의 뜻으로 풀이한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친구의 간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사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만일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를 매몰차게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 우려되어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강청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본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살아 계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주는 진정한 기쁨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하는 일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In Luke 11:8, the word "boldness, importunity" is translated from the Greek word "anaideia". This word originally means "rudeness, effrontery, or impudence." Most people translate this word as "boldness" and interpret the story as having been able to finally secure the bread from his neighbor by not giving up and by asking persistently. Therefore, focus is placed on the answer to "persistent prayer." But if this word was translated as "effrontery" as originally meant, the protagonist of this parable would be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is man's persistent request. In other words,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e request of the man who visited the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should be given a heavier share of attention, even though he accommodated the request out of fear of shame or blame from neighbors. The accommodation was made not just because the man was his friend but because the friend was afraid of losing face to his neighbors if the persistent request of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was heartlessly denied.
By the same token, our Lord listens to and answers our prayers out of "saving face" because our Father always faithfully keeps his promises to us and not necessarily because of our persistence. If the worldly friend had answered the wishes of his friend out of desire to save face, how would the living and good God who loves His children turn His face away from the desperate imploration of His children? For the sake of His saving face alone, God would give us something good. What's important is that the real joy of our prayers is not just in the answer to our prayers. We pray because we just love th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when we pray. Therefore, rather than the answer to our prayers, the prayer itself is the grace and the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2 주일칼럼

빈터, 그 가득한 공간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곽노순 목사님이 쓰신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을 보면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빈 공간들이 순서없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지만 또 어떤 공간에는 한마디씩 적혀있습니다. "백지는 빈 칸이지"로 시작되면서 "백지는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니지", "빈 칸은 그득하네"에서 "비어 있는 것은 넘쳐 흐르네"로 끝납니다. 저는 곽목사님이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빈 칸에 그리 쓰시고는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비어지게 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배당도 사람들 먹고 사는 삶의 자리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병실은 가득차고 근심과 걱정은 차고 넘칩니다. 삶의 자원이 넉넉한 사람들은 비어있는 시공을 잘 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고픔과 좌절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비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허무가 의미로, 혼돈이 조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 오시는 이 계절, 만삭이 된 여인이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여관이 꽉 채워져있으니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 들어 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방에 오래전 김지하 선생님이 주고 간 '빈터의 바람'이란 글과 함께 난초가 그려

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목사님 계신 곳이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던 강원도 원주가 되기를 빕니다"하셨습니다. 빈터의 바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우리네 삶의 시공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비어있는 것은 비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 비어져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곽목사님이 개척하신 샤론교회는 미국교회를 빌려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무리 더운 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어디서인지 시원한 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다른 것 안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책만 읽으셨습니다. 심방 이야기하면 "이놈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교인들 다 살피고 있다. 사람의 몸이 분주하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아니다"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목회한다고 여기저기 여러 캠퍼스 다니면 "너는 배운 것이 별로 없으면서 뭘 그리 많이 가르치러 하느냐?"하셨고, 제 열쇠 꾸러미를 보시고는 "깨달음을 얻을수록 열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너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구나" 하셨습니다. 어느날 교인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부르시더니 신문사에 광고를 내라 하십니다. 여쭈었더니 "더 이상 손님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내라"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70명이 넘어가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마음 먹고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바로 다음 주일 하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 어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절 지금도 가끔 돌이켜 보면 내 인생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현실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을 지내면서 지금은 인간의 발버둥으로 애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잘 정돈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계절 빈 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3

December 월 Mon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The Lord's Words of Warning

맥잡기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의 여섯 가지 경고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 (1) 바리새인들의 위선(1-3절); (2)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두려움(4-12절); (3) 물질적 탐욕(13-21절); (4) 생활의 염려(22-34절); (5)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부주의(35-53절); (6) 종말의 때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성(54-59절).

누가복음 12:13-21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2장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Luke chapter 12 contains six different words of warning from the Lord. 1) Warning against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12: 1–3); 2) Warning against being afraid of earthly authorities rather than of God (12: 4–12); 3) Warning against the greed of wealth (12: 13–21); 4) Warning against the worries of life (12:22–34); 5) Warning against not being prepared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12: 35–53); 6) Warning against lacking spiritual discernment to interpret the times (12: 54–59)

Luke 12:13–21

13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14 But he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rbitrator over you?"

15 And he said to them, "Take c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covetousness, for one'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16 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rich man produced plentifully,

17 and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for I have nowhere to store my crops?'

18 And he said, 'I will do this: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19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ample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relax, eat, drink, be merry.'

20 But God said to him, 'Fool! This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21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 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4–15절).
What did Jesus say to the person who pleaded Jesus to tell his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him? (12:14–15)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In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God rebuked the wealthy person. Why? (12: 2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내 영혼의 참 만족
The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19절). 영혼은 세상의 쾌락, 일락, 향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간은 다름아닌,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만족은 결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도리어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등 온갖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일락, 향락은 영혼을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을 파멸의 죽음으로 이끕니다(참고. 딤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살 때에 참 만족을 누립니다.

The rich fool had a huge misunderstanding about his soul.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12:19).
God created our soul not for it to be merry in the pleasures of the world but to be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glorify God who is the creator and master of our soul. The world renown physicist and mathematician Pascal said in his book Pensees,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In other words, true satisfaction of the human soul does not come from the enjoyment of food and other pleasures of this world.
Despite enjoying great material abundance in the world today, many people still continue to live their lives without experiencing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Feeling unfulfilled in their souls,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struggling with a sense of emptiness, loneliness and even guilt. Their attempts to fill the void inside with things and pleasures of the world only exacerbate their sense of nothingness and death (C.f. 1 Tim 5:6,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Our souls were made to find satisfaction only when we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live in the grace of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4

December 화 Tue

길이 참으시는 주님

The Long-Suffering Lord

맥잡기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1-5절). 이 회개의 주제가 무화과나무 비유(6-9절)와 연결되어, 유대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의 결실을 소망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열여덟 해 동안 귀신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유하셨고(10-17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말씀하셨다(11-21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은 계속되었다(22-35절).

누가복음 13:6-9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3장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Jesus refers to the people who suffered and died in Galilee and Jerusalem and urges people to repent (13:1–5). This theme of repentance is echoed once again in the parable of a fig tree, in which Jesus warns the people of Israel of God's impending judgment as a fig tree that does not bear fruit will be cut off. After this, on Sabbath day, Jesus heals a woman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13:10–17), and teaches about the kingdom of God using the metaphor of a mustard seed and yeast (13: 11–21). Jesus continues his journey to Jerusalem (13:22–35).

Luke 13:6–9

6 And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came seeking fruit on it and found none.

7 And he said to the vinedresser, 'Look, for three years now I have come seeking fruit on this fig tree, and I find none.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ground?'

8 And he answered him, 'Sir, let it alone this year also, until I dig around it and put on manure.

9 Then if it should bear fruit next year, well and good; but if not, you can cut it dow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주인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포도원지기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did the man who owns a vineyard say to the man who takes care of the vineyard when he saw that the trees did not bear any fruit? (13:7)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지기는 그에게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8–9절)
What did the man who works at the vineyard say to the owner in response? (13:8–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페스의 주님
Jesus of "A-pes"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유대인 무리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을 찍어버리라"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찍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파텔, 아페스 아우토이스) 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는 뜻의 '아페스'라는 희랍어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가 한 말, 곧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8절, 큐리에, 아페스 아우텐)라고 한 간청에서 '내버려두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닥친 그 무자비한 폭력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아페스 기도에 반격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찍어버려야 할 폭력이 포도원지기의 "그대로 두소서"라는 아페스 간청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로 거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 완전히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In Luke chapter 23:34, Jesus offers a prayer of forgiveness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t the foot of the torturous cross, people shouted, "Crucify him!" Put differently, they were shouting "Cut him down!" However, Jesus prayed a prayer of forgiveness for the people who shouted Jesus to be cut down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Pater, a-pes autois). The Greek word 'a-pes' which means "to forgive" in this prayer is also used in verse 8 of our text today when the worker in the vineyard says to the owner, "Sir,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Kurios, a-pes auten), to mean "leave it alone."
Jesus retaliated the violence of people with a prayer of 'a-pes' as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Similarly, the violent act of cutting down of the fig tree with an ax was spared by worker's request of 'a-pes' when he pleaded, "Sir, leave it alone."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in order for us to bear fruit in our lives, Jesus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and died for us. By doing so, Jesus became the fertilizer by which we live a fruit-bearing life. Through his sacrifice, he made it possible for us to have the life of resurrec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5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

An Invitation to God's Salv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4장

새518장(통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서두(1-6절)의 안식일 논쟁에서 인간 구원(치유)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한 마디 반문 앞에 적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인 잔치의 비유(7-14절)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또한 큰 잔치의 비유(15-24절)에서 당시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복을 대조 시키셨다. 결론 부분(25-3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조건으로 자기부인과 철저한 준비성이 강조되고 있다.

누가복음 14:15-24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In the debate regarding the Sabbath, the opponents of Jesus could not stand against Jesus' teaching that salvation(healing) of human beings must take priority over everything. In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14:7–14) that follows, Jesus teaches about humility. Then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14:15–24), Jesus contrasts the lack of faith in Jews who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Gospel to those who are poor and despised but have accepted the invitation and enjoyed the wonderful blessings of the great banquet. In the concluding part (14:25–35), Jesu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nying one's self and careful planning and preparation.

Luke 14:15–24

15 When one of those who reclined at table with him heard these things, he said to him,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6 But he said to him, "A man once gave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17 And at the time for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18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to him, 'I have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out and see it. Please have me excused.'

19 An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examine them. Please have me excused.'

20 And another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21 So the servant came and reported these things to his master.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said to his servant, 'Go out quickly 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the poor and crippled and blind and lame.'

22 And the servant said, 'Sir, what you commanded has been done, and still there is room.'

23 And the master said to the servant, 'Go out 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people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24 For I tell you,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my banque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큰 잔치 비유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 초청을 거부(사양)했습니까? (18–20절)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what kind of people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banquet? (14: 18–20)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했을 때 주인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23절)
What did the master commanded the servant to do when he told the master that "There is still room"? (14: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
A Joyless Christian?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노래 가락에 맞춰 추는 춤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에 도저히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고난과 절제의 영성을 최고로 생각하여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은밀한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혼자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예배당 벽 속에 가두어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의 영성이 탁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과 희생, 절제와 순종 이런 덕목들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비신앙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잔치의 영성은 곧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쁨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주제인 것이 분명하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God is always into throwing a banquet for those who are saved. And in this banquet, there is no shortage of singing and dancing for God. If you are at this banquet, you, too, will not be able to just sit there doing nothing. Christians are those people who have attended this banquet. For this reason, Christians should always be full of joy. How can we not rejoice when 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and we have become God's children by the grace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In church history, there were ascetics and mystics in the Middle Ages who regarded the discipline of suffering and self-denial as the highest form of virtue that they intentionally sought out life in the mountains or wilderness. Some of them made and live their whole life in a tiny prayer room in a monastery or locked themselves up in the church wall, feeding themselves through a small hole in the wall. In a way, this kind of spirituality may seem very deep and holy to some people. But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question if this is a spirituality that we need to imitate or practice in our own lives.
Spiritual virtues or disciplines like suffering and sacrifice, self-denial and obedience are certainly virtues that all of us need to pursue. But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eeking joy and pleasure is not wrong as Christians. Spirituality of the banquet is the spirituality of joy. If joy is clearly at the heart of Christmas and Easter celebration, then joy is the essence of our Christian faith. For this reaso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joyless Christia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6

December 목 Thu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God who seeks after the Lo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5장

새294장(통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1-2절).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들, 곧 잃은 양의 비유(3-7절), 잃은 드라크마(은전)의 비유(8-10절), 잃은 아들(탕자)의 비유(11-32절)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잃은 자들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15:11-24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Reading insight

When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gathered to hear Jesus,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riticized Jesus for welcoming them (15:1–2). Then Jesus tells them three parables that deal with lost things;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15:3–8),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15:8–10) and the Parable of the Lost Son (15:11–32). Jesus the Son of God came to this world to find the lost.

Luke 15:11–24

11 And he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12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property that is coming to me.' And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13 Not many days la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ook a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squan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14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arose in that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15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16 And he was longing to be fed with the pods that the pigs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17 "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bread,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18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19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20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21 And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Bring quickly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hoes on his feet.

23 And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24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자 스스로 돌이켜 한 말은 무엇입니까? (17–19절)
What did the prodigal son say to himself when no one would give him anything to eat, even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15:17–19)

큰 아들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 준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자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older son complained against the father for throwing his brother a banquet,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older son? (15:31–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버지가 되어야
When You Become a Father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러시아의 어느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고 가톨릭 교회 성직자이자 하바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이 그 곳에 가서 실물보다 크게 그린 거대한 그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세세한 부분까지 음미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Day Break공동체에서 정신박약 장애우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감명을 받고 1992년에 저술한 '탕자의 귀향'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모습을 탕자에서 큰아들의 모습으로 빗대는 순서를 거쳐, 끝내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헨리 나우웬은 이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마침내 잔칫상에 초대한 아버지의 그 두 손(엄밀히, 한 손은 아버지의 강인한 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어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일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안식처 또한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n a museum in Russia, there hangs a painting by the famous Dutch artist named Rembrandt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One day, a Catholic priest and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named Henry Nouwen visited the museum to look at the painting. There, he stood in front of the painting for hours, carefully observing every aspect of the painting. He was mesmerized and so moved by the merciful portrayal of the father embracing the prodigal son that he gave up his teaching job and moved into a small community for mentally retarded people in Canada called "Day Break"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serving the people there until his death in 1996 by heart attack.
Inspired by Rembrandt's painting, Henry Nouwen wrote a booked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in 1992. In this book, he described himself first identifying with the prodigal son in the story, then with the older son, and finally ending up with hearing the call to be the father who represent grief, forgiveness and the heart of generosity.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most people think that returning to the father's house is the ultimate point of the story. But Henry Nouwen argues that there is a bigger point that this story is making. It is the call to be the hands of the father (strictly speaking, one is the strong hand of the father and the other is the gentle hand of the mother) who forgave, healed, accepted and welcomed two sons to the banquet. He concludes that unless we arrive at a place of forgiveness and welcome, we haven't arrived at our final destination in our spiritual journey and that we will not find true sabbath in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7

December 금 Fri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The life of a wise steward

맥잡기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13절)에서 제자들은 의로운 청지기들로서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 들보다 재물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셨다. 아울러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한 쪽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세로 재물을 축적함으로써 돈을 섬기고 있다고 비판한다(14-18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19-31절)에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부자의 자기만족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다.

누가복음 16:19-31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6장

새95장(통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I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16:1–13), Jesus taught the disciples to use their wealth wiser than the unrighteous stewards of the world. In addition, Jesus said that the Pharisees who appear to serve God with more religious zeal than others are like those who serve two masters because they serve money by accumulating wealth with their religious authority. (16:14–18) I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16:19–31), Jesus warns of the complacency of the rich who completely ignore the suffering of the poor.

Luke 16:19–31

19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who feasted sumptuously every day.

20 And at his gate was laid a poor man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21 who desired to be fed with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Moreover,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22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23 and in Hades, being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Abraham far off and Lazarus at his side.

24 And he called out,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end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in anguish in this flame.'

25 But Abraham said, 'Child, remember that you in your lifetime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azarus in like manner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nguish.

26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in order that those who would pass from here to you may not be able, and none may cross from there to us.'

27 And he said, 'Then I beg you, father, to send him to my father's house--

28 for I have five brothers--so that he may warn them, lest they also come into this place of torment.'

29 But Abraham sai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30 And he said,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goes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31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hear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convinced if someone should rise from the d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22–23절)
Where did the beggar Lazarus and the rich man go when they died? (16:22–23)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절)
What did the rich man say to Abraham when he saw Abraham with Lazarus by his side? (16: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
Leading to true repentance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살아 있는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1절).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소생) 자체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조차도 전국적인 회개나, 전세계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끄는 것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도 아닙니다. 비록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가 지옥의 불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의 다섯 형제에게 가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고 끝내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끄십니다.

When the rich man who fell into Hades saw Lazarus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 he begged Abraham to "send him to the five living brothers to testify, so that they all may not come to such a place of suffering." Then Abraham spoke.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16:31). Therefore, the focus of this parable is tha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does not in itself make a person repent.

Even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 not lead to national or worldwide repentance. It is not miracles, like the resurrection of a dead person, that definitively drives people to repentance.

Nor is it testimony of heaven and hell. Even if Lazarus comes back to life, goes to his five brothers, and shouts fervently about the torment of the rich man in the fires of hell, they still will not believe and will never repent. So, what can lead a person to repentanc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The words of Moses and the prophets are clearly referring to the Word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came into the world. He is Jesus Christ. In the end, only Jesus Christ can really lead people to repentan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8

December 토 Sat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A person of faith,
a person of gratitude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7장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교훈(1-4절)과 더불어 믿음과 종으로 서의 겸손함에 대한 교훈(5-10절)을 주셨다. 그런 후,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을 지나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서 열 명의 나병환자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고쳐 주셨고(11-19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20-37절).

누가복음 17:11-19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Reading insight

Jesus gave lessons on temptation and forgiveness of sins (17:1–4) as well as lessons on faith and humility as a servant (17:5–10). Then, as he was passing through the borders of Samaria and Galilee, he encountered ten lepers in a village, where he healed them (17:11–19) and told of what would happen in the end times (17:20–37).

Luke 17:11–19

11 On the way to Jerusalem he was passing along between Samaria and Galilee.

12 And as he entered a village, he was met by ten lepers,who stood at a distance

13 and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14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5 Then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turned back,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16 and he fell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Now he was a Samaritan.

17 Then Jesus answered, "Were not ten cleansed? Where are the nine?

18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19 And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무엇이라 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13절)
When the ten lepers saw Jesus, they stood far off and cried out to him. What did they shout? (17:13)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Hearing their shouts, what did Jesus say to them? (17: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감사의 자리
The attitude of gratitude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을 고침 받은 열 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특별히 그는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하나님의 선물(은혜)만 받았지, 실상 그 선물(은혜)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도,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의 차이도, 택함 받은 백성과 멸망 받을 백성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에 차이입니다.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환자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15절),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재능으로,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감사의 자리는 은혜를 아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기쁨을 충만이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 깊은 사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Of the ten people who had been cured of leprosy by Jesus, only one person (especially a Samaritan who was hated by the Jews) returned to Jesus and gave thanks. The remaining nine received God's gift (grace), and, in fact, they did not know what the gift (grace) was.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wa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ean and the unclean, nor the chosen people and the pagan. The difference is whether you have an attitude of gratitude for the grace you received or not. The Samaritan leper,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17:15), returned to Jesus and fell at his feet, giving thanks (17:16).
If you have received God's grace, you must give thanks for the grace given. In the past, we too have received countless graces. Even in the midst of a painful pandemic, if we are looking back, we have no choice but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God's grace. But we must examine how grateful we are for the grace we have been given. It is not a true faith if we are just mentally aware of grace. We must come out to give thanks and express our gratitude with our lips, our talents, our material things, our dedication and service. The attitude of gratitude should be in the heart that experienced grace. It is the privilege of salvation through faith. It is a heart full of joy through praise and worship. And it is a devotion that gives deep love to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9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9 주일칼럼

Bummer Lamb

이승우 목사 (워싱톤연합감리교회)

혹시 Bummer Lamb(의역: 실패한 양)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어미 양이 새끼를 낳은 후에 자기가 낳은 새끼를 중에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미 양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잘 알려진 바는 없고 아무튼 어미 양은 그 새끼 양이 젖을 먹고 싶어서 자기에게로 오면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지 못하게 한 새끼는 그 후 절대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미 양에게 버림받은 새끼 양은 마치 목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목을 아래로 축 늘어트리고는 기가 죽은 모습으로 지내는데 바로 그렇게 어미 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새끼 양을 "Bummer Lamb"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Bummer Lamb는 어미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Bummer Lamb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어미 곁에 가지 못한 채 목을 늘어트리고 있는 불쌍한 Bummer Lamb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손으로 떠서 먹여주고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고 담요로 덮어 자기 가슴에 안아 주므로 그 양이 자기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봐줘서 양이 잘 자라면 목자는 그 양을 다른 양들이 있는 양우리로 돌려보내서 다른 양들과 같이 지내게 하는데 그러다가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양이 바로 그 Bummer Lamb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돌봐주던 목자의 음성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랍니다. 목자가 그 양을 다른 양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은 자기를 돌봐준 목자의 음성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Bummer Lamb과 같지 않나 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20

December 월 Mon

기도에 관한 교훈들

Precepts on Prayer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8장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우선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 – 끈질긴 과부의 비유(1-8절)와 올바른 기도의 비유(9-14절)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후,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15-17절). 이어서 젊은 부자 관원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의 반응(18-30절)과 아울러 장차 인자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다(31-34절). 그런 후, 걸인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셨다(35-43절).

누가복음 18:1-8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First, Jesus taught about prayer through two parables –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18:1–8) and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18:9–14) – and then blessed the children (18:15–17). There was the question about eternal life from the rich young ruler and his response to Jesus (18:18–30). Jesus foretold of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that the Son of Man Jesus would endure in the future (18:31–34). Then he healed a blind man who was a beggar (18:35–43).

Luke 18:1–8

1 And he told them a parable to the effect that they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lose heart.

2 He said, "In a certain city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respected man.

3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who kept coming to him and saying, 'Give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4 For a while he refused, but afterward he said to himself, 'Though I neither fear God nor respect man,

5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ive her justice, so that she will not beat me down by her continual coming.'"

6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righteous judge says.

7 And will not God give justice to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delay long over them?

8 I tell you, he will give justice to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id Jesus tell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18:1)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After telling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what did Jesus say with groaning? (18: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한 판 승부
About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집요하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한 과부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5절).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희랍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권투 시합에서 쓰는 말로써, '자꾸만 얼굴을 때려 눈이 멍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치열하게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양 선수 모두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불의하기로 악명 높은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해서 졸라 대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아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에게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펀치를 계속 맞아 나가떨어지고 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권투시합으로 치면 기권패를 한 셈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의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An unjust judge tells himself about a widow who persistently visits him and complains: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come and attack me!'" (18:5). The word "bothering"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Hupopiazo." This word was originally used in a boxing match and means "to bruise the eyes by hitting the face over and over again." In a fierce boxing match, both fighters are bound to get bruises around their eyes. Therefore, the judge, who was notorious for injustice, became so annoyed and bothered by the widow's constant harassing that he raised the white flag in surrender to the helpless widow.
It is as if the judge is knocked down by the widow's punch. In boxing terms, he would have withdrawn and lost. Sometimes you may feel helpless in the face of difficult and challenging tasks. No matter where you look in the world, you have nowhere to turn. You are put in a tight spot. What you can and must do in such a situation is pray.
Just like Jacob who wrestled with God at the Jabbok River ferry, you must fight a battle of prayer with God. If you pray persistently without giving up, your good Heavenly Father will surely answer you.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1

December 화 Tue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Jesus enters Jerusalem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9장

새586장(통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였고(1-10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해가자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열 므나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셨다(11-27절).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28-40절), 장차 멸망할 성읍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41-46절). 그 후,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47-48절).

누가복음 19:41-48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